이란, 아랍권 만류에도 보복 초읽기…각국 대피령

‘확전 막자’ 국제사회 노력에도 이란 ‘보복 의지’ 확고
네타냐후, 전면전 대비 태세…미국 국방부 군함 급파

자국 수도에서 벌어진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의 보복 임박 관측 속에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확전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최근 잇따른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겨냥한 어떤 공격이든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맞대응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동 주변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르면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하니예가 암살되자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피의 보복’을 공언한 바 있다.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도 최고위급 지휘관을 표적 공습해 제거한 이스라엘에 앙갚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보복할지 알 수 없지만, 공격의 파괴력을 키우기 위해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 정부군 등 이른바 ‘대리 세력’을 동원하는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4일 주례 각료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벌써 ‘이란 악의 축’과 다면전을 치르고 있다”며 “우리는 공격과 방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가 돼있다.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공격행위에 대해서도 무거운 대가를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군사 훈련 등 다양한 조치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공격 시나리오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등에서 선제적 조처로 ‘예방적 행동 또는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이 전했다.

이스라엘 전선사령부는 주민들에게 주택 내 안전한 대피 공간에 음식과 물을 비치하라고 당부했다.

구급대원들은 전면전 발생을 가정한 비상 훈련을 실시했다. 레바논 국경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북부의 의료센터들도 환자들을 지하 보호 병동으로 옮길 준비를 갖췄다.

이스라엘 최대 항구도시 하이파의 산업시설에서는 헤즈볼라 등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대비해 위험물질 제거 작업도 진행됐다.

전면전을 우려한 미국과 주변 아랍권 국가들은 이란을 자제시키려 하지만, 이란은 이런 요청을 묵살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내 협력국 정부들에게 확전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이란 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란 측이 “아랍 외교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전쟁을 촉발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거부 했다는 것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오른쪽)이 4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파디 장관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을 공식 방문한 요르단 고위 관리다. /연합뉴스

이란의 보복이 자칫 연쇄적인 대응을 촉발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런 메시지 전달의 배경이라고 WSJ은 해석했다.

‘이슬람권의 종가’ 격인 요르단도 이례적으로 하이만 사다피 외무부 장관을 테헤란에 급파해 막판 보복 자제 설득을 시도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그러나 이란이 하니예 암살과 관련,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과감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요르단의 설득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사파디 장관과 회담에서 하니예 암살은 “대응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중대한 실수”라며 보복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이란 국영 방송이 보도했다.

맹방인 이스라엘을 이란의 보복으로부터 지키겠다고 공언한 미국은 전력 증강도 결정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탄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복수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으로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동에 1개 대대 규모의 전투기 추가 파견, 1개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유지하기 위한 핵 추진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 타격 전단 출격도 명령했다.

긴급한 상황 속에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마이클 쿠릴라 미국 중부사령관이 중동 순방에 나섰다. 쿠릴라 사령관은 걸프 국가들과 요르단, 이스라엘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릴라 사령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4월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당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한 것과 같은 공조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미 당국자는 예상했다.

각국은 자국민의 중동 여행을 자제시키고, 항공사들도 중동 노선 운항을 일시 중지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레바논에 머무는 자국민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고 스웨덴도 베이루트 주재 대사관을 일시 폐쇄하면서 레바논에 남은 자국민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른 나라로 떠나라고 촉구했다.

영국 외무부는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자국 대사관 직원들의 가족들을 현지에서 철수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 조속히 출국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델타, 유나이티드, 루프트한자, 에게항공 등이 이스라엘 노선 운항을 중단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국영 엘알 항공이 자국민 수송을 위해 아테네, 키프로스 등 노선에 항공기를 추가 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50% 대 49%…해리스, 트럼프에 ‘근소한 승리’

7개 경합주 지지율 50:50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CBS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을 오차범위(±2.1%) 내에서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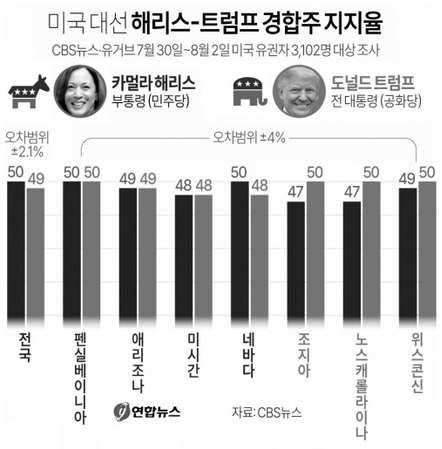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은 50% 대 50%로 동률이었다.

CBS뉴스는 경합주별로 지지율을 추산했는데 이 결과도 초박빙이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3개 주에서 지지율이 같았다.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에서 앞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모두 오차범위(±4%) 안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자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한 양상을 드러냈다.



지난달 18일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58%만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투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74%로 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을 때 그를 찍겠다고 한 흑인 유권자가 73%였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그 비율이 81%로 집계됐다.

성별로 지지율을 보면 남성은 해리스 45%·트럼프 54%, 여성은 해리스 54%·트럼프 45%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남성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에게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8일 조사와 비교하면 정당별 적극 투표층은 민주당 81%→85%, 공화당 90%→88%로 격차가 좁혀졌다.

미국이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을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 32%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력을 갖췄느냐는 질문에는 64%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그 비율이 51%에 그쳤다.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활력 있고, 집중력이 있으며, 유능하다고 평가했으며, 강인함과 업무추진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유권자들은 주요 관심사인 경제 상황 개선과 불법 입국 차단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 97개를 평균한 결과에서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6.5%, 47.6%의 지지율로 1.1%포인트에 불과한 격차를 보였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인구 55% ‘빈곤층’

1분기 470만명 중산층→빈곤층

아르헨티나에서 올해 첫 3개월간 500만명 가까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르헨티나의 C5N 방송은 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올해 첫 3개월간 44%에서 54.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C5N는 이 수치가 민간연구소가 아닌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이 지난 2일 발표한 공식 수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조정, 고물가로 인한 급여 구매율의 상실로 인해 올해 1분기에 470만명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을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국립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인구의 반 이상인 2550만명이 가난하며, 900만명이 절대빈곤인 극빈층에 속한다.

지난 12월 출범한 밀레이 정권의 각종 긴축 및 경제 충격요법으로 올해 들어 3개월간 빈곤율은 44%에서 54.8%로, 극빈율은 13.8%에서 20.3%로 증가해 470만명의 새로운 빈민과 280만명의 극빈자가 생긴 것이다.

어린이 빈곤율도 69.7%로 급증했으며, 어린이 극빈율도 30%로 치솟아 14세 이하 어린이 10명 중 7명이 가난한 가정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지난 100년간의 쇠퇴를 끝내기 위해 점진적인 변화는 없고 급진적인 변화만이 있을 것이라며, 각종 긴축 경제 조처를 시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격 정상화로 인해 도입 초기에 폭등한 물가는 점차 둔화세를 보이면서 월간 물가상승률은 최고 25%에서 지난 6월 4.6%까지 내렸고, 재정 흑자도 기록했다.

하지만, 밀레이 정부의 ‘자유시장 개혁’은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한 소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한 아르헨티나 상업·서비스 연맹(CAC)의 소비지수에 의하면, 지난 6월 전체 소비는 전년 대비 9.8% 하락했으며, 이중 의류 및 신발이 -26%, 문화·여가가 -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현지 일간 클라린이 보도했다.

특히 7월 대형마트 판매는 전년 대비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8월에는 -20%를 상회할 것이며 이는 지난 2001년 아르헨티나 최악의 경제 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1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아파트]					
2024타경 229	1	서구 시청로96번길15, 15층 1508호 [치평동,치평동 로잔티움파크] 178.52㎡	아파트	652,000,000 652,000,000	
2024타경 1079	1	남구 봉선중앙로103, 102동 7층 708호 59.83㎡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관리비약120만원미납상태]	아파트	185,000,000 185,000,000	
2024타경 1307	1	광산구 월계로59, 205동 1층 106호 [월계동,호반아파트] 59.82㎡	아파트	203,000,000 203,000,000	
2024타경 1468	1	북구 양산신촌길1, 3층 307호 [양산동,한양아파트] 84.90㎡	아파트	179,000,000 179,000,000	
2024타경 1536	1	나주시 죽림길71, 103동 2층 203호 [죽림동,삼성아파트] 59.949㎡	아파트	85,000,000 85,000,000	
2024타경 1604	1	남구 서문대로749번다길35, 101동 5층 503호 [진월동,진월동양지바른아파트] 76.8226㎡	아파트	280,000,000 280,000,000	
2024타경 1994	1	광산구 풍영로170번길39-9, 104동 3층 301호 [장덕동,성덕마을새한포유] 84.9401㎡	아파트	479,000,000 479,000,000	
2024타경 2126	1	나주시 상야2길16, 1동 4층 414호 [빛가람동,토담휴로스1차오피스텔] 41.42㎡	아파트	99,000,000 99,000,000	
2024타경 2522	1	곡성군 곡성읍 교촌죽안길24, 3층 302호 [곡성벨라지오] 44.5239㎡	아파트	119,400,000 119,400,000	
2024타경 62456	1	북구 운암산길48, 제102동 제18층 제1802호 [동림동,동림동대광로제비앙아파트] 84.9779㎡	아파트	457,000,000 457,000,000	
2024타경 62609	1	북구 양산택지로79번길15, 102동 7층 712호 [양산동,일신아파트] 59.70㎡	아파트	142,000,000 142,000,000	
2024타경 62777	1	나주시 우정로77, 제108동 제6층 제605호 [빛가람동,빛가람혁신도시중흥에스-클래스센트럴1차] 84.9345㎡	아파트	391,000,000 391,000,000	
2024타경 62791	1	서구 내방로433, 13층 1301호 [농성동,농성지오스테이션] 79.2692㎡	아파트	251,000,000 251,000,000	
2024타경 62937	1	광산구 송도로270번길71, 1동 2층 209호 58.95㎡	아파트	75,000,000 75,000,000	
2024타경 63206	1	남구 용대로155, 1층 114호 59.98㎡	아파트	108,000,000 108,000,000	
2024타경 63688	1	동구 화산로323번길17, 제1층 제102호 [용산동,용산동도나우이스트] 124.096㎡	아파트	582,000,000 582,000,000	
2024타경 64438	1	서구 시청로27, 제102동 제29층 제2903호 [치평동,상무광명메이루즈] 88.405㎡ 33.472㎡	아파트	725,000,000 725,000,000	
2024타경 64476	1	남구 독립로70-1, 101동 13층 1303호 [백운동,백운우방아이유쉘] 84.9888㎡	아파트	405,000,000 405,000,000	
2024타경 64667	1	동구 의재로43번길3, 제2동 제7층 제703호 81㎡	아파트	148,000,000 148,000,000	
2024타경 65233	1	동구 필문대로12-7, 제105동 제11층 제1102호 [계림동,아파트] 84.930㎡	아파트	296,000,000 296,000,000	
2024타경 66199	1	광산구 목련로41, 제212동 제1층 제106호 [산정동,부영애시앙] 84.8198㎡ [하남부영애시앙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배당요구신청서상관리비원금5,998,640원,연체료663,050원미납상태]	아파트	263,000,000 263,000,000	
2024타경 67253	1	서구 염화로45번길17, 106동 9층 909호 [화정동,라인동산아파트] 59.85㎡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현재까지관리비약640,000원미납된상태]	아파트	145,000,000 145,000,000	
[대지/임야/전답]					
2024타경 62463	1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371-4 2295㎡	전	351,675,000 351,675,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2지상식재수목매각제외
		동소 371-5 3665㎡ [비닐하우스1동매각제외] [물건번호1:인접필지와경계불명으로정밀측량요]	전		
2024타경 63374	1	서구 유촌동 531 66㎡ [매각제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일반건축물대장에미등재된제시외건물있음]	대	99,660,000 99,660,000	대지만매각
2024타경 63831	1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617-1 132㎡ [감정평가서상공부상지목전,현황잡종지상태.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전	7,293,000 7,293,000	제시외건물토지부분에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2024타경 64612	1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223-6 1350㎡ [지상매각외비닐하우스소재]	답	275,400,000 275,4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4타경 63091	1	광산구 송도로154, 제2층 제201호 118.2㎡	상가	362,000,000 362,000,000	
	2	광산구 송도로154, 제2층 제202호 141.28㎡	상가	432,000,000 432,000,000	
	3	광산구 송도로154, 제2층 제203호 149.6㎡	상가	462,000,000 462,000,000	
[기타]					
2024타경 62104	1	동구 금동 211-20 193.7㎡	대	535,968,430 535,968,43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감정평가서상목록2[가]건물공부상면적79.33㎡,개략적실측사정약101.21㎡
		동구 백서로117번길 5 1층54.21㎡ 2층25.12㎡ 부속건물 단층 주택57.21㎡ 창고6.29㎡ 제시외주택등129.29㎡ [물건번호1:목록2[나]건물공부상면적57.21㎡,개략적실측사정약74.0㎡,목록2[나]건물공부상구조목조시멘와즙,현황목조강판지붕]	점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4. 8. 20.[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4. 8. 27.[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유승주